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요셉의원



격 | 월 | 간

2021년 1월 제 **114**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조해봉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셉의원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josephclinic@daum.net

쪽방촌 개발 맞춰 병원 이전·운영 개선 이전 부지 확보 및 공사기간 진료공백 해소 고심



영등포 역 쪽방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가 ‘영등포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쪽방촌 주민들은 새해를 맞아 이주와 보상, 철거, 건설 계획 등이 어떻게 추진될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곳이 ‘상전벽해’라 할 정도로 크게 바뀌는 것은 반세기, 50년 만이다. 1970년대 집창촌이 난립하고 도시빈민이 모여들며 형성된 이곳 빈민촌은 그동안 여러 차례 도시환

영등포역 쪽방촌이 정부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주택사업 계획’에 따라 50년 만에 새롭게 탈바꿈한다. 본원도 새로운 시설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큰 사진은 새로 건설될 쪽방촌 조감도, 아래 가운데는 본원의 현재 모습.

경정비 계획이 세워졌으나 잦은 계획 변동과 마찰 등으로 실행되지 못했었다. 그러다 새 정비계획 발표 한 해 뒤인 올 초, 일부 국공유지에서는 신안산선 공사 등과 맞물려 포크레인이 동원돼 철거와 땅고르기 작업을 하며 변화의 고동을 울리고 있다.

쪽방촌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본원 역시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터전 마련과 시설 및 운영 혁신을 위해 다각적인 모색을 하고 있다. 이번 정비사업에 따라 본원



114호
주요
소식



요셉의원 이전의 과제

1



쪽방촌 향기

5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6



병원 소식

8



봉사자 코너

12





환자를 진료하는 신완식 의무원장. 신 원장은 영등포역 쪽방촌이 새롭게 정비되더라도 가능하면 사회빈민층이 많은 이 지역에서 계속 환자를 돌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1997년 관악구 신림동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뒤 20여년 만에 건물이 헐리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한다.

본원 신완식 의무원장은 “부지를 마련해 병원 건물을 새로 지을지, 정비지구에 들어서는 종합사회복지센터에 입주할지 등의 여부는 정비사업 주체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영등포역 주변에 노숙인 등 사회빈민층이 많아 가능한 한 이 지역에서 진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와 관리비 싸야 주민 재정착”

정부가 발표한 정비사업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기존의 노후주택과 건물들이 헐리고, 쪽방촌 일대 1만㎡에 이곳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호, 신혼 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 분양주택 600호 등 모두 1200호의 주택이 건설된다.

이와 함께 쪽방 주민들의 취업과 자활을 지원하는 종합 복지센터를 도입하고, 무료 급식과 진료 등을 지원하는 돌봄 시설도 들어서게 된다. 또 입주주민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도서관, 주민 카페 등의

편의시설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설계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이주를 위한 보상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는 2024년에는 여의도와 안산을 잇는 신안산선 역이 들어서는 등 2025년까지는 이 일대 건설 및 정비 사업이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곳 입주주민들의 큰 관심사는 이주비가 언제 얼마나 지급되고, 이어 언제 어디로 이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업주체 측에서는 주민들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사정을 듣고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공주택사업에서 쪽방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지구 내 우측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선(先)이주단지를 조성해 사업 기간 중 쪽방주민이 임시 거주토록 하고,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 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에 재정착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발표대로라면 쪽방 주민들이 새로 입주할 임대주택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현재 월 20여 만원 정도되는 임대료의 2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은 공공주택사업의 세입자 이주대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생활터전이 변모하면 삶의 방식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지켜보고 있다. 주민 황종훈 씨(65)는 “새로운 주거 시설이 들어서면 환경이 깨끗해져서 한결 좋지만, 낯선 환경 속에서 그동안의 동네 인심이랄까 이웃 간의 정도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황 씨는 “수급비 받는 사람들이 열 명에 두세 명밖에 안되고 대부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임대료나 관리비가 비싸면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힘들다며 떠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등포역 쪽방촌 정비지구에는 2025년 말까지 분양주택 600호와 영구임대주택 370호 등 모두 1200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국공유지에서는 신안산선 공사 등과 맞물려 현재 땅고르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 오른쪽).





본원의 새 보금자리 다각도로 모색 중

서울시에서는 현재 개발지역 좌측 끝에 종합사회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영등포역 주변 지역의 노숙인과 취약계층 보호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혹시 모를 계획 변동에 따라 본원도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

본원은 신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무료 진료 이외에도 정신적 치유를 돕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한 음악치료교실과 영화포럼(영화 피정), 치유인문학 강의 그리고 곧 추진 예정인 심리상담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몇몇 프로그램들은 참가자들이 4층

옥상에 설치한 비좁은 도서관에 다닥다닥 끼어앉아 진행돼 왔다. 많은 이들이 참석하면 낮은 천정에 공기 순환도 잘 안돼 ‘사람 냄새’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박상욱 본원 행정지원실장은 “진료 이외에 빈민층 지원을 위한 각종 의류와 신발, 생필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 개인위생을 지킬 수 있도록 이발할 장소와 목욕실도 마련하려다 보니 지금 건물은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지 오래”라며, “특히 장애 환자가 진료실에 오르내리거나 휠체어를 옮길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다 변변한 대기실 마련도 어려워 입동설한이나 여름철 찜통 더위



요셉의원 건물사용 현황 및 중장기 계획

현행 (AS-IS)				2012년 중장기 마스터 플랜 (TO-BE)			
● 대지면적 : 317.0 m ² ● 건축면적 (건축물대장) : 925.85m ² (1~3층 879.4m ² + 옥탑 46.45 m ²) ● 건축면적 (실사용면적) : 1,198.2m ² (1~3층 879.4m ² + 옥탑318.8 m ²) ● 층수 : 지하 - / 지상 3층 (4층 옥탑)				● 대지면적 : 1,150 m ² ● 건축면적 (실사용면적) : 5,080m ² (* 별첨: 설계도 참조) ● 층수 : 지하3층 / 지상 6층			
구분	규모(m ²)	용도	문제점	구분	규모(m ²)	용도	
1층	281.7	1.로비(안내대스크)		지하3층	336	1.기계실	
		2.신규환자 상담실	-매우협소, 대기공간 부족	지하2층	627	2. 주차장	
		3.사회사업실 사무실	-매우협소, 대기공간 부족			1. 주차장, 기계실, 영선실, 회의실	
		4.환의과 진료실	*매우협소, 대기공간 없음			2.각 팀별 창고	
		5.영양팀 사무실				3.의료기록보관실/방사선기록 보관실	
		6.주방 및 식당	-목욕나눔 급식(150명/회) 공간 부족	지하1층	627	1. 식당	
		7.창고1 (식물보관)				2.영양팀창고	
		8.창고2 (의류보관)	-매우협소			3. 의류창고	
		9.환자목욕실	-매우협소, 남/여 공동사용			4. 대기공간	
		10.보일러실				5. 목욕실/휴게실	
		11.화장실(1일반)				6. 주차장	
		12.화장실(2장예안)		소계	1,590		
2층	298.8	1.환자진료실/의료기록실		1층(로비)	576	1. 접수실	
		2.진료실 (1, 2, 3, 4) -선우경식 기념실(1진료실)	*일평균 동시 5~7개과목 진료로 진료실 부족해 1개 진료실에서 2개과 진료 (* 물리치료실 공간 80%)			2. 상담실	
		3.환자대기실	*과목별 환자대기공간 절대부족			3. 안내실	
		4.간호실 & 처치실	-과별 처치실 부족			4. 물리치료실	
		5.약제실	-환자대기공간 절대부족	2층	576	1.각 임상과별 외래진료실	
		6.X-ray 촬영실	-매우협소, 대기공간 부족			2.중앙대기실	
		7.영상촬영실	-매우협소, 대기공간 부족			3.약국	
		8.화장실 남/여				4.영상의학실	
		9.창고				5.상담실/ 의료 기록실	
3층	298.8	1.지과 진료실 (제어 4)		3층	576	1.진료실	
		2.파노라마X-ray 촬영실				2.자율분사자실	
		3.기구소독실				3.중앙대기실	
		4.상담실	-대기공간 부족			4.간호팀	
		5.발의실	-의료진 발의실 절대부족			5.상담실 및 처치실	
		6.환자대기실	-대기공간 부족	4층	576	1.진료실	
		7.진료실 (어비인후과)	* 진료공간 절대 부족 장비설치불가			2.원터	
		8.경당 및 휴게실				3.환독실	
		9.재의실				4.상담실 & (프로그램실)	
		10.의무원장실 겸 회의실				5.시정각교실 (프로그램실)	
		11.자원봉사자관리실	-자원봉사자 대기/휴식공간 없음			6.스트레스관리실(프로그램실)	
		12.화장실(남/여)				7.중앙광공실	
		13.창고		5층	576	1.행원장/의무원장실	
옥탑	46.5 (실사용 약 318.8) *약 233m ² 은 간이 임시시설로 사용중	1.도서관 (* 영등포 작은도서관)	-서고공간 절대 부족 회의실/ 별도 프로그램실 없어 음악 치료 등의 용도로 사용중 * 각종 프로그램실 절대 부족			2.행정사무실	
		2.행정사무실	-공간 절대 부족			3.기도실	
		3.영선실				4.상담실 & (프로그램실)	
		4.휴게실 겸 프로그램실	-각종 프로그램실 절대 부족	6층	576	1.사제관	
		5.창고 (의류 등 후원물품)->도서관 위 미니2층	*계절별 의류 등 후원물품 보관창고 절대 부족			2.전시관(설립자 선우경식원장)	
		6.원장실 (옥탑소형공간임시)	-공간부족으로 2층 원장실을 폐쇄, 용도변경하고 옥탑에 임시공간마련	옥상	34	3.대회의실	
계	925.8					4.상담실 & (프로그램실)	
(옥탑임시사용포함)	1,198.2			지하포함	5,080	5.경당	
				(지하 제외)	3,490	1.세탁실	
						2.휴식공간	
						3.재활시설	

지난 2012년 실시한 전문가 컨설팅 결과, 본원 시설 규모는 20여개 전문 진료과 진료실과 각종 자활 프로그램 운영, 생필품 보관과 지원, 필수 부대시설 등을 포함해 최소한 1150m²(약 350평)의 대지에 지하 3층 지상 6층은 돼야 할 것인바 진단이 나왔다.

가 한창일 때, 또 눈 비가 휘날릴 때는 병원 밖에서 줄서서 기다려야 하는 환자분들의 불편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본원에서는 대지면적 317m²(96평)에 지상 3층과 옥탑을 합해 연면적 1982m²(362평)를 쓰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협소한 공간을 감안하면 앞으로 마련할 새 건물은 1150m²(약 350평)의 대지에 지하 3층, 지상 6층은 돼야 진료와 각종 자활 프로그램 및 생활 지원 활동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시설 규모는 어렵 짐작이 아니라, 지난 2012년 내부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컨설팅을 받았을 때 나온 수치다(도표 참조).



영등포 역 앞 보현종합지원센터에서 나눠주는 음식을 타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번 쪽방촌 정비사업에 따르면 쪽방촌에 있는 5~6개의 복지 시설들은 정비지구 좌측 끝에 종합사회복지지원센터 건물을 지어 입주시킨다는 구상이다.

진료 환경, 쾌적하고 편리하게

본원의 진료시설은 19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목소리도 그동안 종종 들려왔다. 국내에선 이미 20여년 전부터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을 중심으로 마케팅 개념이 도입되며 진료 서비스가 크게 개선됐다. 대학병원들을 비롯해 웬만큼 이름난 전문병원들은 호텔급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한다.

본원이야 영리를 지향하지 않을 뿐더러, 정성어린 후원금을 알뜰하게 활용해 가능한 한 많은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베풀어야 한다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 하지만 이제는 빈민촌 환자들도 일반병원 못지 않게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때가 왔다는 지적이다. 후자는 ‘배려 아닌 환자의 권리’라고 말하기도 한다.

본원 김재근 의료사업실장은 “지금까지는 여러 여건상 환자의 편의보다는 주어진 열악한 여건에서 진료의 효율성만 생각하다 보니 환자 위주의 서비스는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늦어도 3월부터는 환자분들이 줄서서 기다리지 않도록 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환자 접수와 대기실 환경도 크게 개선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올해부터는 가까운 큰 병원들과 의료 협약을 맺어 심화 치료가 필요한 가난한 환자들의 의료비도 지원하게 된다.

이같은 진료 서비스 개선은 이번 정비사업에 따른 병원 이전과 맞물려 제3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원은 20여개 전문 진료과를 두고 있는데다 각종 자활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의류와 각종 생필품들을 모아 어려운 이웃과 여러 복지기관에 나눔을 하고 있다. 이같이 진료 이외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항상 머리를 싸매야 했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 되기 위해

본원 정운식 기획실장은 “본원이 주어진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과 환경을 갖추는 일은 사회경제적 발전 속도에 비추어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많은 후원자와 봉사자 여러분의 기대에 걸맞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진정한 위로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수하게 민간의 후원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본원으로서의 합당한 용도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초대 선우경식 원장이 뜻있는 분들의 후원으로 요셉의원 33년의 초석을 다졌듯이, 앞으로의 30년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고 나누는, 위로와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원 실무자들도 다같이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다.



본원 환자 대기실(사진 위)과 도서관에서 열리는 음악치료교실(가운데), 현관 안 비좁은 장소에서 봉사자들이 이발하는 모습.



쪽방촌 향기

“소의 끈기로 ‘요셉의원의 기적’에 동참 권유합니다”

현재 한 차례라도 후원금을 보내온 누적 후원자 수가 13,0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요셉의원의 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은 소의 해, 신축년이니 소와 같은 끈기를 가지고 친척이나 주위의 지인들에게 이 ‘기적’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1996년 2월 말 파푸아뉴기니 대사로 부임할 때까지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출국 전에 ‘서현섭 집사 환송 예배’도 거행됐으니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에 근무하면서 한국 까리마스 수녀회 수녀들이 여자기술학교를 세워 불과 수 년 만에 반듯한 학교로 키워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신심과 열성에 감복하여 가톨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명순 스텔라 수녀의 지도로 교리 공부를 하여 이듬해인 1997년 6월 잉글레스 교황청 대사에게 토마스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고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5년 뒤인 2002년 3월 14일에는 노모와 집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황청 특명전권대사로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게 신임장을 제정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황은 수행원을 한 사람씩 접견하고 묵주와 기념 메달을 선물로 나눠주셨습니다. 나는 그 날 이후 아침마다 이 묵주로 로사리오 기도 5단을 바치며,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성된 성 요한 바오로 2세를 마음에 새기곤 하였습니다.

교황청 대사를 역임한 것은 분명히 분수에 넘치는 영광이자 큰 축복이나, 한편으로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나로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성당 건축 헌금을 송금한 통장이 들통나 불교 신자인 집사람과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6년 간에 걸쳐 신약성경을 중국어와 일본어로 각각 한 번씩 필사를 마쳤고,



서현섭

본원 후원자·전직 외교관

현재는 매일 구약성경을 중국어와 한국어로 조금씩 필사하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의원은 지난 2005년 한 교우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는 영등포 역 부근에 있는 요셉의원에 직접 찾아가서 시설을 둘러보고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봉사자들의 업무 자세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선우 경식 원장님이 대학병원 교수 자리를 그만두고

요셉의원을 세워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그 자세에 마음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고, 후원자의 말석에 이름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해 11월에는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요셉의원 원장 명의로 ‘후원 기간 15년’에 대한 감사장을 받고 후원자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감탄하면서도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더 많은 금액을 후원하고 싶지만 소록도, 곤솔라따 등에도 나누어 전달하다 보니 성에 차지 않은 작은 금액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십시일반이라고, 여럿이 조금씩 힘을 합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우 경식 원장님께서 생전에 ‘후원자가 3천 명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피력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 차례라도 후원금을 보내온 누적 후원자 수가 13,000여 명(실제 후원 월 평균 3,000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요셉의원의 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금년은 소의 해, 신축년이니 소와 같은 끈기를 가지고 친척이나 주위의 지인들에게 이 ‘기적’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해 보고자 합니다.

2020.11~2020.12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장경근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남대문시장 상인 교우회에 감사

서울 남대문시장 성당 교우분들이 매년 이곳 필리핀 요셉의원에 후원금을 보내주신다. 2013년부터 시작됐으니 벌써 8년째다. 2018년에는 이 후원금을 모아서 새 버스를 장만할 수 있었다. 이 버스는 한국에서 의료봉사단이 오거나, 필리핀 현지 진료진들을 태우고 봉사를 하기



필리핀 요셉의원에서는 2013년 개원 초부터 어린이 결핵환자를 진료해 500여 명을 완치시키고 현재 60여 명을 관리 중이다.

위해 꼭 필요한 장비다. 작년 12월에도 어김없이 1년 모금한 후원금을 '바보나눔'을 통해 보내주셨다. 이 후원금은 이곳의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무료 의약품 지원과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결핵약 지원에 사용된다.

여의도 본당에서 보낸 장난감 선물

얼마 전 서울 여의도 성당에서 옷과 학용품, 장난감 등을 보내주셨다. 모임이나 사업 상의 여러 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본당 교우분들이 힘을 모아 보내주신 물품은 모두 새 것들이었다.



서울 여의도성당에서 교우들이 필리핀 요셉의원에 보낸 학용품과 장난감 등을 포장하는 모습(사진 위 왼쪽). 사진 오른쪽은 전달된 물품과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소녀.

후원품이 도착했을 때인 1월 17일은 마침 필리핀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산토 니뇨(거룩한 아기예수) 축일이어서, 이를 기념해 각 가정에 한 아름씩 선물을 안겨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이런 옷이나 장난감보다 식료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장난감을 가슴에 부둥켜안고 기뻐하는 아이들 모습을 보며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시 봉새 때문에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아이들에게 이 선물들은 정말 먹을 것보다 더 소중한 선물일 수 있었다. 여의도 성당 홍성학 신부님과 본당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philjs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1:4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 2020년 11~12월 신규 후원회원 명단(총 8명)

♥ 김택훈 ♥ 김형두 ♥ 이병문 ♥ 이병종
♥ 이채혁 ♥ 이한철 ♥ 최봉연 ♥ 한영순

+ 2020년 11~12월 신규 후원단체

♥ 가톨릭의대 총동문회

+ 2020년 11~12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302명(내과/안과 진료 재개)
♥ 약처방 207명 ♥ 급식 7,648명

+ 개원 후 진료 및 급식통계 (2020년 12월 현재)

♥ 진료 80,927명 ♥ 급식 342,022명



복음 묵상

“신앙, 선택이었다면 이제 필수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떤 선택권도 없다. 내가 장씨 집안의 둘째 아이로 태어나는 데에는 나의 어떠한 의지도 개입되지 않았다. 내 부모, 내 가족, 친지들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소였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신앙이 선택사항이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태어나면서 자연스레 집안의 종교를 따라가는 경우도 많겠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자기 종교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종교가 없던 사람이 배우자의 종교를 따라가는 것도 결국 하나의 이익을 위한 선택인 것이다. 그리고 선택사항이라는 말은 나중에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애초부터 종교와의 접촉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고, 내가 믿는 종교가 자신과 맞지 않다고 느끼면 떠날 수도 있고, 과학 신봉자로 변하면서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특별한 경험에 의해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갖거나 종교에 환멸을 느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신앙이 선택사항이 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단편적인 예로 대학입시 합격자 발표 때가 되면 학생들에게서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된다. 합격했다고 함박웃음을 짓는 학생이 있는 반면, 열심히 성당에 나오던 학생인데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성직자나 수도자의 성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성당에 안 가려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고, 단체활동 안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신앙에 타격을 받는 경우도 흔하다.

이 정도면 그래도 약한 수준이다. 안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신앙은 자주 선택적이게 된다. 최선을 다하던 사업이 망하거나 집안에 불운이 겹치는 경우가 생기면 그 탓을 하느님에게 돌리기도 한다. 필요해서 신을 애타게 찾았는데 결과가 안 좋다면 그에 대한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

오늘 복음(연중 2주일)에서 제자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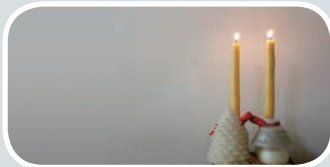
예수님이 찾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무엇을 찾느냐?”

제자들이 대답한다. “라빠,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장경근 안드레아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신부



예수님은 시몬을 눈여겨 보시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 불릴 것이다.”

부르심은 예수님의 의지였지만 동시에 제자들의 선택이기도 했다. 요한의 아들인 것은 선택할 수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은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닌 베드로라 칭하신다.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보고 배웠다.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은 보통은 선택으로 시작해서 필수로 나아간다. 처음에는 손 끝만 담가보고 물 온도가 나에게 적당한지 확인했다가 나중에는 목욕으로 온 몸을 담그는 과정이다. 이 신앙의 여정에는 이를 방해하는 여러 시련들이 있고 여러 난관들이 있다. 우리 스스로 그 시험과 난관이 무엇인지는 이미 잘 알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은 바로 내 신앙이 선택적이게 될 수 있는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다. 성당 미사 참여, 기도 모임, 게다가 어떤 단체 활동도 하지 말라 하니, 미사 가기 싫고 떠날 핑계를 찾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고 시련은 진짜를 가려낸다. 금덩어리를 불에 달구면 불순물이 빠지고 순금만 남는 것처럼 말이다. 비록 미사 참여와 단체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하느님과의 내면적인 관계는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앙인의 고유 영역이다.

예수님께서 이 시기가 끝나면 그 신앙인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목욕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요한복음 13, 10)



요셉의원 소식

1월 4일 '조출한' 시무식 가저



본원 직원과 상근봉사자 및 현장체험 신학생 20여 명은 1월 4일 3층 경당에서 아침 기도를 마친 뒤 조출한 시무식을 가졌다. 올해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무미사 대신 조해봉 원장신부의 간략한 시무사로 식을 대신했다. 조 원장신부는 이날 시무사에서 “환자와 후원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늘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조 원장신부는 “그러기 위해서는 각 실별

로 지금까지 해온 것을 살펴보고 그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나 내용이 도출되면 적극 지원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를 위한 마음 자세에 대해 “환자들이 우리 병원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헤아려서 환자들을 대하고, 함께 다가가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신부는 “올 한 해의 어려운 상황들을 환자 여러분들이 잘 겪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노력들을 모아보자”고 당부했다.



본원 7년 의료봉사자 유우금 루시아 수녀 선종

34년간 수도자이자 의사로 가난한 이들 위해 헌신



본원에서 7년 동안 의료봉사를 한 유우금 루시아 수녀(메리놀회)가 지난해 11월 9일 미국 뉴욕 메리놀수녀회 본원에서 90세를 일기로 선종했다. 부산에서 태어난 유수녀는 1955년 고려대의대 전신인 서울여자의대를 졸업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미국 유학 후인 1965년 부산 메리놀병원 산부인과 주임의사로 일하다 메리놀 수녀회에 입회한 뒤 아프리카 케냐에서 20여년 간 의료봉사를 하며 ‘케냐의 어머니’란 칭송을 받기도 했다.

1994년 귀국 후 3년 간 본원에서 의료봉사를 한 그는 1996년 중국 길림성 동북사범대로 임지를 옮겨 영어를 가르치다 2004년 다시 본원으로 돌아와 상근의사로서 4년 동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안수를 베풀었다. 유 수녀는 국내외에서의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제21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미국 본원으로 돌아가기 전인 2007년 4월 27일 열린 환송미사에서 그는 “이 병원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받고 떠난다”, “이 집은 하느님이 다스리는 집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겠다”는 작별인사를 했다. 또 본원에서 현장체험을 하고 있는 신학생들에



2020년도 하반기 워크숍 실시

본원은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층 경당에서 조해봉 원장신부와 신완식 의무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하반기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정상적인 환자 진료와 자활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해 1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를 상정한 새해의 사업실별 대응방안

과 신규 사업계획을 발표, 논의하고, 현재 실행 검토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쪽방촌 재개발에 따른 세무 이전방안 준비 및 신규 법인설립 방안도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부 개인별 발표에서는 요셉의원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신완식

의무원장은 총평에서 처음 봉사할 때의 초심을 생각하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당부했다. 이어 조해봉 원장신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협조하며 변화에 잘 대응해 나가자고 말하고, 사목자로서 함께 기도하고 필요한 일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외부 시설 아닌 본원 강당에서 철저한 방역지침을 지키며 진행됐으며, 파견미사 등도 모두 생략했다.

쪽방촌 380가구에 성탄 나눔



본원에서는 이번 성탄 선물로 유기농 식품을 비롯한 여덟가지 물품을 구입해 친환경 종이백에 넣어 전달했다.

본원에서는 성탄을 앞둔 지난해 12월 17일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을 위해 1000여 만원 어치의 떡국떡과 갈비탕, 팔죽, 만두, 김치, 김, 양말, 핫팩 등 여덟가지 성탄 선물을 준비해 380 가구에 전달했다. 사업사업실이 주관한 이번 성탄 나눔은 품질 좋은 유기농 식품들을 우리농에서 주문하고, 물품을 담은 봉투도 친환경 종이백을 구입해 활용했다. 이번 쪽방 나눔에는 본원 원장신부와 민루이제 수녀 등을 비롯한 10여 명의 본원 직원과 신학생 봉사자들이 참여했다. 물품을 전달받은 주민들은 "매년 때마다 생필품을 전해줘서 요긴하게 쓴다"며 고마워했다.

신완식 의무원장 EBS 초대석 출연

본원 신완식 의무원장이 지난해 12월 23일 'EBS 초대석'에 출연해 요셉의원의 무료 진료활동과 각종 자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본원에 부임하게 된 계기와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신 의무원장은 지난 2009년 가톨릭 대의대 정년을 6년 남겨놓고 퇴임한 뒤, 본원



2007년 4월 서울대교구 김운회 주교로부터 감사패를 받고(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유 루시아 수녀. 사진 맨 왼쪽은 본원 선우 경식 초대 원장). 오른쪽 사진은 미국으로 출국 전 선우 원장으로부터 안수를 받는 유 루시아 수녀.



게도 "어려운 길을 택한 신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격려 인사를 전했다(요셉의원 30년사) p.349). 유 수녀는 출국에 앞서, 깊은 영성으로 요셉의원을 이끌고 있는 선우 경식 원장에게 안수를 요청하며 '하느님이 요셉의원을 보살피신다'는 믿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서울대교구 김운회 주교는 환송미사 이틀날인 4월 28일 34년 동안 수도자와 의사로서 케냐와 중국, 그리고 본원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의무원장으로 부임해 12년째 무급으로 봉사하고 있다. 신 의무원장이 부임하기 한 해 전 선종한 초대 선우경식 원장과는 가톨릭의대 선후배 사이로, 여의도성모병원 재직 시절 결핵환자 진료 일로 인연을 맺었다. 본원 부임 초기엔 일부 환자들의 '거친' 태도와 '냄새'에 당황하기도 했으나, 이들의 여린 속마음을 다독여주면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건강 등의 문제로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신 원장은 "방송을 보고 뜻이 있는 분들은 꼭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직원 함께 모여 김장, 애브비 후원

지난해 11월 25일 아침 본원 직원과 상근 봉사자 및 신학생 등 20여 명은 1층 식당에 모여 약 두 시간에 걸쳐 함께 김장을 담갔다. 전 날 준비한 무 채와 마늘 등 갖은 양념을 버무려 김치 속을 만든 다음 절임배추 300포

기에 속을 채워 넣으며 숨겨둔 솜씨를 발휘했다. 본원 식당에서는 직원과 저녁 진료 봉사 나오는 의료진을 위해 점심과 저녁식사를 배식하고 있어 김치의 쓰임새가 많은 편이다. 이번 김장 재료는 해마다 김장 지원을 해오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 애브비의 후원으로 마련했다.

가톨릭대 신학생들 후원금과 물품 전달



지난해 12월 3일에는 가톨릭대 성신교정 신학생들이 연말을 맞아 모금한 후원금을 의류와 마스크 등 후원 물품과 함께 본원에 전달했다. 후원에 참여한 10여 명의 신학생을 대신해 본원을 찾은 지도신부인 권혁준, 윤종상 신부 등 사제 세 명은 "코로나19로 더욱 움추러든 가난한 분들에게 작으나

마 한 줄기 온기라도 전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남동 성당, 마스크와 컵라면 후원

서울 한남동 성당(주임 이종환 요셉 신부)에서는 지난해 12월 22일 가난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고 마스크 3000개와 컵라면 200개를 보내왔다. 매달 무료급식을 실시하던 한남동성당은 코로나 사태로 무료급식이 잠정 중단되자 이 예산으로 어려운 이



웃을 돕자는데 의견을 모아 이번 후원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본당 사회사목분과장과 함께 직접 본당 봉고차로 후원물품을 실어온 황 엘리사 사회사목 담당 수녀는 "마침 요셉 의원에 물품을 후원한다는 얘기를 들은 신자 한 분이 마스크는 본인이 후원하겠다고 해서 도움을 받았다"며, "좁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쪽방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서연 한방봉사의, 쌍화탕 기부

본원에서 한방 진료를 하는 이서연 봉사의가 개인사정으로 봉사를 못 나와 마음에 걸린



본원 직원과 상근 봉사자 및 신학생 등 20여 명이 지난해 11월 25일 아침 1층 식당에 모여 김장을 담그는 모습.

다며 쌍화탕 두 박스를 직접 만들어 보내왔다. 이서연 봉사의는 동봉한 편지에서 “몸은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요셉 의원에 있다”며,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꼭 다시 환자분들을 뵈러 가겠다”고 적었다.

수원교구 박기정 신부 첫미사 봉헌

지난 2016년 본원에서 현장체험을 했던 수원교구 박기정 다윗 신부가 12월 4일 사제



서품을 받고 7일 본원에서의 첫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 뒤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안수를 베풀 박 신부는 강론에서 “신학교에 들어가며 ‘내가 왜 신부가 되려고 하는가’를 끊임없이 자문해 보았다”며, “주님으로부터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는데, 나는 드린 것이 없어서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다 제 자신을 봉헌하자고 다짐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신부는 이어 “그런 다짐 속에서도 자주 넘어질 때는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고 위로하셨다”며, “그래서 그 분의 말씀인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14,27)를 서품 성구로 삼았다”고 밝혔다.

신학생, 장기 현장체험 마감

대전교구 유현재 마르티노 부제와 제주교구 김석우 스테파노 신학생이 각각 10개월과



본원에서 장기 현장체험을 마감한 유현재 부제(사진 오른쪽)와 김석우 스테파노 신학생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6개월 간의 장기 현장체험을 마치고 소속 교구로 복귀했다. 유 마르티노 부제는 12월 18일 부제 서품을 받기 열 달 전인 2월 10일 본원에 현장 체험을 나와 각 교구에서 온 신학생들을 이끌며 업무 보조와 짐 나르기, 청소 등 굵은 일을 도왔다. 본원 직원들은 코로나 사태로 봉사자들이 거의 못 나오는 상황에서 신학생들의 참여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워했다.

유현재 부제는 12월 2일 현장 체험을 마감하며 “쪽방 주민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로를 잘 알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았고, 직원 여러분 및 신학생들과 함께 일하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성직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가난하며 고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신속한 업무 처리와 활발한 성품이 돋보였던 김석우 신학생은 12월 14일 본원을 떠나며 “여기 와서 요셉의원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 쪽방촌의 실상을 보고 충격도 받았다”며, “이 분들이 사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대화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후원자들, 격려편지와 물품 기부

연말 연시를 전후해 각지에서 여러 후원자들이 격려 편지와 함께 후원 물품과 후원

금을 전해 왔다. 익명의 한 후원자는 1월 초순 “약소하지만 의류 몇 점과 후원금을 조금 보내드린다”며, “우리가 함께 하는 세상이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라는 편지 글을 적어보냈다. 최 미카엘라씨는 지난 12월 29일 마스크를 전달하면서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도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애쓰시고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요셉의원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고 격려했다. 또 1월 19일에는 해마다 수면바지를 보내오는 후원자가 “올해도 은총 행복 충만한 한 해 되시라”는 인사를 전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봉사자 코너

“요셉의원 봉사, 끝까지 함께 해야지요” 박현구 치과장비 봉사자



본원은 환자와 봉사자, 후원자로 구성된 무료 자선병원이다.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인 만큼 의료진이 봉사의 중심을 이루지만, 뒤에서 의료진을 지원하는 숨은 손길도 빼놓을 수 없다.

본원 초창기 때 인연을 맺었다 독립해서 사업체를 꾸려가며 본원 치과를 ‘내집 돌보듯’ 돕는 박현구 봉사자(강서프라임덴탈 대표)도 그런 봉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각종 치과 장비 전문가인 박 봉사자는 치과 환자가 진료 시 눕거나 앉는 유니트 체어를 비롯해, 이 체어에 공기나 물을 공급하는 컴프레서나 각종 소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달려와 고쳐주곤 한다.

“기존 유니트 체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조치해 드리고,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담당회사에 문의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해드립니다. 또 작은 장비들을 교체해야 할 때가 있는데, 요셉의원에 적절하고 문제가 없는 장비를 알아봐서 구매에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인원이 부족한 본원에서 치과 장비담당 전문 봉사를 20년 넘게 하고 있는 셈이다. 박 봉사자는 치과 장비와 재료 공급업을 하고 있어 필요한 소장비나 재료가 있으면 시가보다 훨씬 싸게 공급해 주고 있기도 하다.

박 봉사자는 꽤 오래 전에 본원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1987년 본원이 신림동에서 개원한 뒤 치과 진료도 함께 시행할 때 마침 치과장비 회사의 신림동 담당이었다.

“어느 날 요셉의원이라는 곳에서 기계 애프터서비스가 들어와 찾아보니 장비를 다른 곳에서 기증받은 탓인지 관리대장에 없더군요. 그래서 전화로 위치를 확인한 뒤 찾아가자 일반 치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낡고 오래된 장비들이 있어서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다행히 큰 고장은 아니어서 고치고 난 뒤 선우 원장님과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우 원장은 당시 요셉의원의 설립 취지와 비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쓰던 장비를 기증받았기 때문에 손 볼 곳이 많을 거라며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다 1997년 본원이 영등포로 이전하면서 담당이 바뀌자 들를 기회가 없었다. 박 봉사자는 마침 그 즈음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경험을 살려 치과 재료업을 시작했다.

“인연이 이어지려고 그랬는지 지금도 요셉의원에 봉사를 나가시는 박보운 원장님이 요셉의원 치과 장비도 손을 봐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도 흔쾌히 동의하고 다시 요셉의원을 찾게 됐습니다. 예전처럼 직장에 매여있을 때보다는 운신의 폭이 넓어져서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환자를 진료할 때 공기와 물을 많이 쓰는 치과에서는 겨울철이 문제다. 유니트 체어에 공기와 물을 공급하는 에어라인과 급배수 라인들이 얼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이다. 박 봉사자는 “어느 추운 겨울철에 실제로 요셉의원 물 라인이 얼었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가 임시로라도 진료를 볼 수 있



게 새 라인을 설치해 드린 기억이 난다”며, “요셉의원에서는 주로 야간에 진료를 많이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늦어도 시간에 상관없이 찾아가 처리해 드린다”고 말했다.

발품에다 능숙한 ‘손품’까지 팔아야 하는 바쁜 봉사가 아니냐고 묻자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보다는 직접 진료 봉사를 하시는 치과 선생님들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치과 원장님들이 진료 마치고 피곤하실 텐데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지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 진료 봉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제 나름의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치과 장비업을 하며 본원 치과에는 별다른 장비를 납품하지도 않는 박헌구 봉사자는 20년 넘게 본원의 치과장비를 수리, 자문해 주고 있는 ‘필수 봉사요원’으로 꼽힌다.

장비 문제로 연락을 하면 바로 달려와 조치를 취하고 조용히 돌아가는 박 봉사자는 20년 넘게 본원을 출입했지만, 치과 외에 요셉의원 안에서 그를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 마치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는 듯’ 성실하면서도 조용하게 봉사를 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성향은 그의 사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듯하다. 30~40 곳 정도 되는 거래처의 상당수가 20년이 넘었다는 것.

“원장님들이 믿고 맡겨주시니 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납품하면 폐기하는 순간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한결같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요셉의원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한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는 ‘작은’ 포부를 밝혔다.



환자 스토리

수급비 쪼개 기부하는 박형수 씨

“올해에는 소년·소녀 가장 돕고 싶어요”



“후원금이 적어서 미안합니다. 버는 게 없어서 한 달에 2만원밖에 못내고 있어요.”

2년 전 본원에서 틀니를 장착한 뒤 ‘너무 고마워서’ 매월 후원금을 정기 이체하고 있는 박형수 씨(58)는 지난 12월 말 공돈이 생겼다면 추가로 10만

원을 쾌척했다. 복권 당첨금으로 받은 5만원에 자기 돈 5만원을 더 보탤다고 했다.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주는 기초수급비 50만 원 가운데 2만 원을 후원금으로 받는다면 ‘벼룩의 간을 내어먹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까 무섭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보태드리는 게 도리’라며 만류를 해도 막무가내다.

“남을 돕는데 빈부 귀천이 따로 있나. 어려운 이들의 처지를 잘 아는 저로서는 늦으나마 가난한 이들을 돕고 살자는 생각에 작은 실천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충청도 시골에서 태어난 박씨 역시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거쳐왔다. 초등학교 때 부모를 따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으로 이사온 그는 공부보다는 ‘싸움의 달인’이었다. 일찍부터 합기도 도장을 다니며 무술을 배우고, 이어 격투기에 주짓수라는 브라질 무술까지 익혔다.

“1970년대 건달들 사이에서 세력 다툼이 심하던 시절, 고교 때부터 영등포 새마을과 일원으로 활동했어요. 그러니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지요.”

남다른 주먹 실력으로 영등포 역파와 자주 싸움도 벌였다는 그는 나이가 들면서 ‘주먹 자랑’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가슴 한 구석에 정의감도 싹텔었다. 20대 중반 무렵 결혼을 한 뒤에는 마음을 다잡고 식품자재업에 뛰어들었다. 가락동 시장과 영등포 시장 등에 냉면이나 쫄면, 두부, 떡볶이, 어묵 등의 음식재료를 납품하는 일이었다. 직원 몇 사람 데리고 하는 작은 식품공장이었으나 수입은 쏠쏠했다. 그러자 공장 규모를 키워보

자는 욕심이 생겼다.

“그게 화근이었어요. 빚 얻어서 설비 새로 들이고, 차도 세 대나 구입해 납품을 하면서 그러저럭 운영은 됐지요. 그런데 부실어음을 많이 받다 보니 견디지 못하고 7년 만에 부도를 내고 말았죠.”

사업 실패에 이은 이혼, 그리고 방향. 그도 어쩔 수 없이 전형적인 나락의 길을 밟았다. 빚에 쪼들리자 아내에게 친정에서 돈 좀 빌려오라고 다그쳤고, 잦은 부부싸움은 부부를 갈라서게 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집을 떠나 전국을 방황하기 시작했다.

“너무 괴로워서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코올 때문에 이도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농촌 품팔이 등을 해서 간신히 생계를 꾸려나갔죠.”

운전면허증이 있어 운전을 해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

나, 나이가 많으면서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그러다 다행히 6,7년 전 기초수급을 받게 되었고, 2016년에는 법원에서 파산 면책 선고를 받아 삶을 옥죄던 은행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현재 서울 종로구 송인동에서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12만원짜리 LH공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그는 헤어진 아내와 두 자녀가 가끔 생각나지만 잊어버리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10여 년 가까이 얼굴을 못 본 자녀들 생각 때문일까. 새해 소망을 묻자 그는 소년·소녀 가장 돕는 일을 가장 큰 관심사로 꼽았다.

“얼마 전 어린 입양아 사망 사건을 TV에서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올해부터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소년·소녀 가장부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2020년 11~12월)

♥ Anna 은영 Han ♥ 강성훈 ♥ 강순희 ♥ 강혜경 ♥ 곽유현 ♥ 권선동 ♥ 권성은 ♥ 권은영 ♥ 권준영 ♥ 권지혜 ♥ 김경식 ♥ 김경옥
♥ 김경지 ♥ 김귀순 ♥ 김군태 ♥ 김기환 ♥ 김나연 ♥ 김나원 ♥ 김대현 ♥ 김별이 ♥ 김병연 ♥ 김보라 ♥ 김보미 ♥ 김서연 ♥ 김서윤
♥ 김선우 ♥ 김성열 ♥ 김소영 ♥ 김송연 ♥ 김수영 ♥ 김수희 ♥ 김순득 ♥ 김신진 ♥ 김영동 ♥ 김용국 ♥ 김유림 ♥ 김정규 ♥ 김정옥
♥ 김정현 ♥ 김정희 ♥ 김종빈 ♥ 김주희 ♥ 김찬중 ♥ 김치순 ♥ 김현신 ♥ 김현정 ♥ 김형래 ♥ 김희정 ♥ 나현주 ♥ 목소희 ♥ 문경옥
♥ 문정숙 실비아 ♥ 문춘복 ♥ 박경숙 ♥ 박경애 ♥ 박미연 ♥ 박미영 ♥ 박미향 ♥ 박상숙 ♥ 박선주 ♥ 박수정 ♥ 박영옥 ♥ 박영은
♥ 박원주 ♥ 박은성 ♥ 박인숙 ♥ 박준수 ♥ 박현주 ♥ 박형수 ♥ 박형순 ♥ 박혜영 ♥ 박홍연 ♥ 박황신 ♥ 백승철 ♥ 백영길 ♥ 변기원
♥ 변성혜 ♥ 변지원 ♥ 서여정 ♥ 서유정 ♥ 서인화 ♥ 서주희 ♥ 서하나 ♥ 성호진 ♥ 손경원 ♥ 송대진 ♥ 신은란 ♥ 신종연 ♥ 이성애
♥ 신지영 ♥ 신진호 ♥ 신혜경 ♥ 신호용 ♥ 안원진 ♥ 안효섭 ♥ 양용하 ♥ 양일용 ♥ 염세실 ♥ 오용환 ♥ 우희정 ♥ 유미라 ♥ 유현진
♥ 윤민호 ♥ 윤용표 ♥ 윤은영 ♥ 윤종욱 ♥ 은성제 신부님 ♥ 이나경 ♥ 이봉진 ♥ 이성숙 ♥ 이용정 · 박선자 ♥ 이윤정 ♥ 이정민
♥ 이정연 ♥ 이정화 ♥ 이진구 ♥ 이하정 ♥ 이현희 ♥ 이화란 ♥ 임경덕 ♥ 임태정 엘리지오 ♥ 장승연 ♥ 장유리 ♥ 장인철 ♥ 장현종
♥ 전금주 ♥ 전양미 ♥ 정금화 ♥ 정락원 ♥ 정민선 ♥ 정인주 ♥ 조경모 ♥ 조근희 ♥ 조대일 ♥ 조주환 ♥ 주현정 ♥ 채정식 ♥ 최늬이
♥ 최민경 ♥ 최순옥 ♥ 최준식 ♥ 한다인 ♥ 한사철 ♥ 한영순 ♥ 한은식 ♥ 홍선호 ♥ 홍순도 ♥ 홍윤선 ♥ 황금문 ♥ 황상준
♥ 황일선 ♥ 황준혁 · 유희영 · 황현희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2020년 11~12월)

♥ (주)데이라이트크리에이티브 ♥ (주)상보기업 오육환 ♥ (주)에스비에스미디어넷 ♥ (주)우일엠씨엠 ♥ (주)케이알피아이 ♥ 건양의료재단



♥ 국립국악고등학교 ♥ 메디언스 ♥ 비즈니스디자인연구소 ♥ 가톨릭대 성신교정
♥ 소연테크 ♥ 칠일칠 ♥ 튼튼요양병원 ♥ 티에스엠스포츠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2020년 11~12월)



♥(주)몽골은컴퍼니 : 두유 1상자 ♥ 김금성 : 감 2상자 ♥ 김미라 : 포도 1상자
♥ 김선영 : 사과 1상자 ♥ 박유미 : 케이크 3개 ♥ 부용농산(조민경) : 마스크 1상자
♥ 안산빈센트의원 : 배 3상자 ♥ 예수사랑공동체 : 빵 4상자 ♥ 유기농별이네굴 :
굴 5상자 ♥ 이경희 : 굴 10상자 ♥ 이나경 : 떡 1상자 ♥ 이동은 : 쌀 · 식품
1상자 ♥ 지노C&T : 국산차 2상자 ♥ 채경숙 : 굴 7상자 ♥ 천주섭리수녀회 : 빵 3상자
♥ 한남동성당 : 라면 13상자 ♥ 황성어사품공동사업법인 : 쌀 20kg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2020년 11~12월)



♥ 가톨릭대 성신교정 : 옷 29상자 ♥ 김건환 : 옷 1상자 ♥ 김건자 · 한사철 : 옷 1상자
♥ 김남호 : 옷 2상자 ♥ 김미란 : 옷 1상자 ♥ 김용화 : 옷 1상자 ♥ 김인자 : 옷 1상자
♥ 김진숙 : 옷 1상자 ♥ 남지연 : 옷 1상자 ♥ 남춘모 : 옷 1벌 ♥ 노미옥 : 옷 2상자
♥ 대방동성당 : 여성의류 5상자 ♥ 문혜숙 : 옷 1상자 ♥ 박정아 : 옷 2상자 ♥ 범일신발
: 신발 1상자 ♥ 삼흥컴퍼니 : 넥워머 1상자 ♥ 송근교 : 옷 1상자 ♥ 신우진 : 옷 4상자
♥ 유선아 : 옷 1봉지 ♥ 유현아 : 옷 1상자 ♥ 윤영수 : 옷 1상자 ♥ 윤인자 본당모임 :
이불 15채 ♥ 이규상 : 옷 2상자 ♥ 이근철 : 장갑 1상자 ♥ 이랜드 : 옷 150상자
♥ 이수정 : 옷 2상자 ♥ 이현주 : 가방 1개, 옷 2상자 ♥ 익명 : 옷 5상자 ♥ 임성욱 :
옷 1상자 ♥ 장대식 : 옷 2상자 ♥ 정희숙 : 옷 1상자, 수건 1상자 ♥ 최 봄 : 옷 1상자
♥ 최서영 : 옷 1상자 ♥ 최선희 : 옷 1상자 ♥ 최윤리 : 옷 1상자 ♥ 카프 : 방한복 100벌
♥ 한현숙 : 옷 2상자 ♥ 홍혜영 : 옷 1상자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2020년 9월~10월)



♥ 아주약품 : 아미클란 외 7종 ♥ 안산빈센트의원 : 코스카 외 2종 ♥ 제일한방 :
한방파프 ♥ 하나제약 : 글리트 외 10종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2020년 9월~10월)



♥ 메디엔젤 : 물비누 1상자 ♥ 방송심의위원회 : 보온대 7상자 ♥ 영등포우체국 : 세제 2상자, 물티슈 1상자, 치약 · 비누 1상자 ♥ 익명 : 티슈
5상자, 쓰레기봉투 2상자, 세제 5상자, 핫팩 1상자 ♥ 임정규 : 잡화 1상자 ♥(주)제인엠엔씨 : 마스크 3상자 ♥ 천원교 : 주방용품 1상자 ♥ 톤28
: 손세정제 1상자 ♥ 하마리아 : 마스크 1상자
♥ 한남동성당 : 마스크 15상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새로 나오신 분



- 의 사 : 박철휘(신장내과)
- 사회사업실 : 고은혜
- 일반봉사 : 이한울
- 신학생 현장체험
 - 수원교구 장진석 마르코,
 - 전태영 스테파노(12/28~1/22)
 - 인천교구 손원호 다윗(1/11~4/11)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

- ♥ 살레시오 수녀회
- ♥ 안산빈센트의원
- ♥ 쪽방나눔(누계 700 가구)
- ♥ 카프
- ♥ 토마스의 집
- ♥ 한울타리공동체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0년 11월	1,141명
2020년 12월	843명



개원 이후 총 진료 환자수(2020년 12월 말 현재)

703,652명



“네가 할 수만 있다면 도와야 할 이에게 선행을 거절하지 마라.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네 이웃에게
‘갓다가 다시 오게, 내일 줄테니’ 하지마라”

| 잠언 3, 27-28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 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서울 요셉의원과 필리핀 요셉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0여 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
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
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70-4688-3416)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
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
신 후에는 전화(070-4688-3416)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서울가톨릭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외환은행	111-13-04699-8	서울가톨릭요셉의원
KEB하나은행	193-890037-13505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josephclinic@daum.net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식사나눔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1층 식당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1층 현관



목욕서비스

시간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장소 1층 목욕실



단주모임 (A.A 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영화포럼

시간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1시 30분~4시
장소 4층 도서관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4층 도서관



법률상담

시간 넷째 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1층 봉사자실



성경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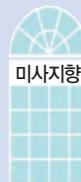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4층 휴게실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